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## [미국 경제]

- Morningstar: 10월 미 내구재 주문, 예상보다 감소... -5.4%
- WSJ: 미 신규 실업 수당 청구, 올해 6월 이래 가장 낮아
- WSJ: 연준, 금리 입장 바꾸기전에 더 많은 증거 원해
- WSJ: 미국인들, 연말 홀리데이 시즌에도 지출 계속한다

#### [미국 금융]

- Bloomberg: 크레딧 카드 이자율, 상한선 있어야... 연 30% 근접
- Bloomberg: 미 2년물 국채 수익률 4.9% 돌파

#### [미국 생활]

- CNN Business: 추수감사절 문 여는 곳과 문 닫는 곳들은?

#### [부동산]

- Bloomberg: 미 모기지 금리, 크게 떨어져... 국채 수익률 감소 탓
- JP모건: 글로벌 주택 시장: 수요 공급의 큰 격차

#### [오일]

- CNBC: 미 원유가 배럴당 75불 아래로
- Bloomberg: OPEC+ 회의, 원유 감산 의견 차이로 다음 주로 미뤄질 듯

#### 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

- WSJ: OpenAI, “ 샘 알트만 CEO로 다시 돌아온다”
- CNN Business: 미국 노조 수십년만에 강해졌다
- WSJ: UA항공, 광고 위해 고객 정보 이용 검토중

#### [보고서]

- 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 금융 시장정보

#### [미국 경제]

### Morningstar: U.S. Durable Goods Orders Dipped More Than Expected in October

#### 10월 미 내구재 주문, 예상보다 감소... -5.4%

- 컴퓨터, 가전 제품 등 내구재 신규 주문이 9월의 증가세에서 10월에 5.4% 감소한 2천7백94억달러를 기록했다고 오늘 수요일 연방 상무부는 밝혔다.
- 9월의 4% 상승에 비교된다. 8월에 0.1% 상승, 7월에 5.5%로 크게 뛰었다.
- 운송 장비가 14.8%로 가장 많이 떨어졌는데 9월에는 11.6% 상승했었다.
- 국방 부문은 제외한 신규 주문은 6.7% 줄었다. 그리고 비즈니스 투자 여건을 가늠하는 항공기 제외한 비국방 자본재의 신규 주문은 전월인 9월에 비해 0.1% 줄어든 7백37억 7천9백만 달러로 집계됐다.

Morningstar 기사

## WSJ: Initial Unemployment Claims in US Decline by Most Since June 미 신규 실업 수당 청구, 올해 6월 이래 가장 낮아

- 신규 주간 실업 청구건수가 크게 줄었다. 점차 식어지는 미 노동시장에서 고용주들이 여전히 종업원들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.
- 오늘 수요일 발표된 연방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11월 18일 끝난 주의 신규 노동시장은 2만4천건이 줄어든 20만9천건을 기록했다.
- 계속 받는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1백84만건으로 줄었다. 두달만에 처음으로 줄어들었다.

WSJ 기사

## WSJ: The Fed Wants More Evidence Before Changing Rate Stance 연준, 금리 입장 바꾸기전에 더 많은 증거 원해

- 요지: 최근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관리들은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보였다.
-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은 이달초에(10월 31일~11월 1일) 금리 인상 중단을 결정했을때 금리 인상은 이제 끝났다고 단정짓지 않았다.
- 적어도 올해 남은 기간동안에는 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더 편할 수 있다는 입장을 연준 관리들은 보인 것으로 최근 의사록이 밝혔다.
- 의사록에 따르면 1) 모든 참가자들은 신중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데 동의했으며 2) 향후 수개월간의 데이터가 (높은 차입비용 속에서) 인플레이가 어느 정도 둔화될 것인지 명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참가자들은 예상했다.

WSJ 기사

## WSJ: American Shoppers Have Plenty of Dry Powder 미국인들, 연말 홀리데이 시즌에도 지출 계속한다

- 미국인들은 경제에 대해 걱정하고 소비자 지출의 지속력에 의문을 품을 이 유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홀리데이 시즌에 소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아니다.
- 소비자 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연말연시에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. 쇼핑할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.
- 지출 계획을 묻은 딜로이트 조사에 따르면 올해 응답자의 지출 예상액은 1천6백52달러로 작년의 1천4백55불보다 증가했다.
- 한편 뱅크오브아메리카 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고객 데이터 분석을 볼때 전반적인 소득 그룹에서 저축률이 계속 높다.

WSJ 기사

**[미국 금융]****Bloomberg: Credit Card Interest Rates Should Be Capped****크레딧 카드 이자율, 상한선 있어야... 연 30% 근접**

- 홀리데이 시즌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소비자의 약 40%가 홀리데이 쇼핑 지출에 신용카드를 사용할 예정이며, 크레딧 카드 사용 고객의 5분의 1은 부채 상황에 애를 먹고 있다.
- 소비자 보호국에 따르면 은행들은 크레딧 카드 부채 이자외에 신용카드 연체료를 받고 있다.
- 현재 생활비가 더 비싸지고 임금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면 필수품 가격이 더 높은 상황이다.
- 그런데 소매 신용카드의 연 이자율이 거의 30%에 근접하고나 이를 넘고 있다. 이자율은 15%나 18% 낮추면 은행은 여전히 수익을 보면서 소비자들에게 좀더 숨통을 틔워줄 것이다.

Bloomberg 기사

**Bloomberg: US Two-Year Yield Tops 4.9% After Economic Data****미 2년물 국채 수익률 4.9% 돌파**

- 미 소비자들의 연간 인플레이 기대치가 추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후에 국채 수익률이 올랐다.
- 소비자들은 향후 1년동안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인플레이가 더 높아 질수 있다고 보고 있다.
- 미 2년물 국채 수익률은 4.9%를 웃돌았다. 달러도 지난 거의 6주동안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고, S&P 500지수는 소폭 상승했다. 애플은 자산이 거의 3조에 근접했다. 유가는 하락했다.
-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S&P 500지수가 향후 10개월동안 10% 상승하는 범위에 있다고 전망했다.

Bloomberg 기사

**[미국 생활]****CNNBusiness: What's open and closed on Thanksgiving Day 2023****추수감사절 문 여는 곳과 문 닫는 곳들은?**

- 추수감사절에 대형 소매업체인 타겟, 월마트, 베스트 바이 등은 문을 닫는다. 메이시, Kohl's 그리고 Nordstrom도 문을 닫는다.
- 가뜩이나 직원 부족현상을 겪는 약국 체인 대부분의 월그린이나 CVS도 문을 닫는다. 24시간 매장은 제외된다.
- 그로서리 체인도 많은 경우 문을 닫지만 확인할 필요가 있다.
- 우체국과 법원, 차량국 등 정부 업무 사무실도 문을 닫는다. 뉴욕주식 시장과 모든 은행들도 문을 닫는다. 단 온라인 बैं킹과 ATM은 예외. 우체국의 경우 UPS, USPS, FedEx도 문을 닫는데 UPS Express Critical and FedEx Custom Critical는 예외.

CNN Business 기사

### [부동산]

#### **Bloomberg: US Mortgage Rates Slide Sharply, Reinvigorating Housing Demand**

##### **미 모기지 금리, 크게 떨어져... 국채 수익률 감소 탓**

-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크게 떨어지면서 주택 구매 수요가 늘어났다.
- 오늘 수요일 모기지 은행 협회(MBA)의 데이터에 따르면,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가 20 베이스 포인트 감소해 7.41%로 떨어졌다. 반면, 주택 구매 신청 지수는 11월 17일까지 3.9% 증가했다. 이는 7월 이후 가장 큰 수치다.
- 모기지 금리는 국채 수익률과 연동해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.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경제와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는 신호에 힘입어 이번 달 크게 감소했다.

Bloomberg 기사

#### **JP 모건: Global housing: The great supply and demand imbalance**

##### **글로벌 주택 시장: 수요 공급의 큰 격차**

- 글로벌 주택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이 맞지 않고 있다. 물론 지역마다 전망은 다르다. 중국과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의 과잉 공급은 미국의 공급 부족과 대비된다.
- 물가의 하방 리스크는 계속되지만 미국의 모기지율은 정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며 글로벌 많은 지역의 주택 가격은 예상보다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.
- 미국의 주택 가격이 내년까지 변동없는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공급 부족 때문에 미국만이 다른, 예외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.
- 미국이 주택 구입은 높은 모기지율과 가격 때문에 구매할 여력이 41년만에 최악의 상황이다. 상대적으로 임대 수요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.

- 중국 주택시장은 더블 딥에 직면해 있는데 홍콩과 더불어 아시아 지역에서는 예외 상황이다.
- 호주 주택 가격은 작년에 2.8% 하락한 후 올해는 2.5% 상승했다.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아주 낮은 공실률이 주택 시장을 받치고 있다.
- 영국 주택 시장은 단기적인 모기지 구조와 리셋 때문에 상당히 취약한 상황이다.
- 상업용 부동산(CRE)은 여러 국가들에서 고평가 된 것으로 보인다.
- 주택과 부동산 부문으로 부터의 체계적인 은행 위협 신호는 보이지 않고 있다.
- JP 모건 부동산팀에 따르면 2024년과 2025년에 대항 설립체의 주당순이익은 두 자릿수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. 건설업체들은 대차대조표가 튼튼하고, 리스크로 줄이고 의사 결정을 개선했다.

JP모건 기사

[오일]

### CNBC: U.S. crude oil tumbles below \$75 a barrel after OPEC delays meeting

#### 미 원유가 배럴당 75불 아래로

- 석유수출기구(OPEC)가 이번 주말에 예정된 원유 생산 감축 관련 회의를 연기한 이후 오늘 미 원유 가격이 4% 이상 떨어졌다.
- 서부텍사스유(WTI)의 내년 1월 계약가가 4.2% 감소해 배럴당 74.50달러를 기록했으며, 브렌트유의 경우도 같은 달 계약가가 4.03% 떨어져, 배럴당 79.13달러에 달했다.
- 한편 회의가 다음주 목요일 까지 연기된 이유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다른 국가들의 생산수준과 관련한 불만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.

CNBC 기사

### Bloomberg: OPEC+ Meeting Delayed as Oil Production Talks Hit Turbulence

#### OPEC+ 회의, 원유 감산 의견 차이로 다음 주로 미뤄질 듯

- 이번 주말에 예정됐던 OPEC+ 회담이 연기됐다. 사우디아라비아와 다른 OPEC 회원국 간의 원유 감산 의견 불일치가 원인으로 보인다.
- OPEC은 웹사이트를 통해 장관급 회담이 다음 주 11월 30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지만, 연기 이유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.

- OPEC과 관련 국가들은유가에 있어서 상당히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. 유가는 지난 9월 정점을 찍은 이후로 18%나 감소했는데, 원유 감산이 유가를 상승시킬 것이라는 예측에서 빛나간 것이다.
- 내년도 하반기엔 원유 공급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, 앞으로의 유가는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.

Bloomberg 기사

### 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

#### WSJ: OpenAI Says Sam Altman to Return as CEO OpenAI, “샘 알트만 CEO로 다시 돌아온다”

- OpenAI가 알트만이 OpenAI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.
- 이 기업은 알트만과 기업 이사진이 더 상세한 논의사항에 대해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으며, 알트만 해임과 관련된 4명의 이사진 중에 3명이 새롭게 구성된 이사진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 발표했다.
- 이번 새로운 이사진에는 Salesforce의 전 공동 CEO인 Bret Taylor, 전 미 국무장관인 Larry Summers, 그리고 이전 OpenAI의 이사진이었던 Adam D'Angelo을 포함한다.
- 또한, 이 사건과 정통한 관계자는 OpenAI의 이전 이사진과 알트만이 지난 주 알트만을 해임하기로 했던 결정이나 그 여파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시작하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.

WSJ 기사

#### CNN Business: Unions are the strongest in decades. Nearly a million Americans got double-digit raises as a result 미국 노조 수십년만에 강해졌다

- CNN의 분석에 따르면, 작년에만 미 노조원들은 10% 이상의 임금 상승을 얻어냈다.
- 그리고 임금 상승의 속도 또한 빨라지고 있다. 70만명 이상의 노조원이 지난 6개월 동안 임금 상승을 겪었으며, 그들 중 30만명은 단지 6주 만에 임금 타협을 얻어낸 것이다. 심지어, UPS 노조원의 경우 파업을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단지 파업의 위협만으로 임금인상을 이끌었다.
- 노조원들만 타이튼 노동시장에서 임금 상승을 얻어낸 것은 아니다. 미 노동부 데이터에 따르면, 10월의 평균 시급은 1년 전에 비해 4.3%, 3년 전에는 18% 올랐는데 이는 40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이다.
- 실업률은 2022년 이래로, 낮은 4%를 기록했으며, 이는 노조들이 근로 협상에서 협상력을 얻어내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.

## CNN Business 기사

## WSJ: United Airlines Weighs Using Passenger Data to Sell Targeted Ads UA항공, 광고 위해 고객 정보 이용 검토중

- 유나이티드 항공이 고객들에게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기 위해, 자사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정보 이용을 검토중이다.
- 이와 관련해, 다른 관계자들은 유나이티드 항공이 아직 확실한 결정은 내린 것은 아니며, 계획을 철회할 수 있다고도 말한다.
-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, 광고의 일부는 기내 오락 시스템이나, 항공권을 예약하는 애플리케이션 상에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.
- 광고를 사업에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기업들도, 최근 고객의 데이터를 이용해 맞춤형 광고를 하기 시작했다.
- 이런 추세는 최근 기술 규제로 인해 맞춤형 광고가 더욱 복잡해짐에 따라, 고객의 개인정보를 잘 알고 있는 기업들이 매출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에 영향을 받았다.
- 유나이티드 항공 임원들은 고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는 방향으로, 맞춤형 광고를 어떻게 출시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.

WSJ 기사

## [보고서]

### 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금융시장정보 (Shinhan Society Daily Letter)

## JP 모건 "내년 미국 0.7% 성장 속 투자등급 신용시장 양호 전망"

### "주요국 금리 인하 속 캐리트레이드 이익률은 줄어들 것"

투자은행 JP 모건이 내년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1%가 되지 않더라도 미국의 투자등급 채권 시장은 양호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.

21 일(현지시간) 블룸버그·로이터통신에 따르면 JP 모건 전략가들은 보고서를 통해 현재 1.8% 수준인 미국 우량 채권의 총수익률이 내년 말 12.4%로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.

이는 내년 미국의 국내총생산(GDP) 성장률이 0.7%에 그치고, 7 월을 시작으로 내년 하반기 기준금리가 1%포인트 하락하는 상황 등을 가정했다.

...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
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

KOCHAM | 460 Park Ave, New York, NY 10022

[Unsubscribe office@kocham.org](mailto:office@kocham.org)

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

Sent by office@kocham.org